

완치가 불가능할 때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

완화적 치료란 보통 ‘완치가 불가능할 때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우리는 분명히 질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기 원하지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늘 있게 마련이다. 어떤 질병은 다양한 장애 정도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많은 질병들은 결국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환자에게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족에게는 슬픔과 상처를 그들을 치료하는 여러 방면의 전문인들에게는 끝없는 도전을 야기시키게 된다.

대부분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치유할 수 없는 환자들을 돌보는 힘든 일을 자신들의 책임으로 항상 받아들여 왔었고 최근에는 ‘호스피스 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더 나은 간호를 발전시켰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사회에서나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호스피스 특수병동이나 팀들이 영국, 북아메리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일본, 인디아 그리고 유럽본토에서도 계속 이런 움직임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은 ‘호스피스’ ‘지속적인 간호단위’ ‘증상 또는 지지팀’ 혹은 ‘완화적인 치료 서비스’ 등으로 각기 다르게 일컬어지지만 이 모두가 지나치게 악화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고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 주고 도와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특별한 요구들이 특히 영국에서는 이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용한 치료들을 발표하고 있고 기존문제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학, 간호학, 사회사업, 원목 그리고 의료 관련 문인들이 모두 밀접하게 협조 하여야만 이런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재발견 하였다.

말기 질환자들에게는 숙련된 의학기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됨에 따라 이런 팀 접근방식은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자들은 마음과 영혼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 가족 역시 말기 환자를 돌보는 동안과 그들 사후 몇년 동안에도 계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 결과 중에서 흥미롭고도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호스피스 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동정심 혹은 관심이나 걱정 등을 독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우선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통 완화 센터나 사별상담 서비스의 확산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들이나 일반의들에게는 완화적 치료를 위한 자신들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큰 관심사라는 보고서들은 말기 환자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 저널은 호스피스 형태의 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말기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판되는 것이다.

완화적 치료 서비스에 대한 대중 관심과 열성적인 지지는 때때로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그것들은 가끔 과거 치료방법에 대한 비평의 형태이기도 하고 또는 호스피스나 완화적 치료 서비스를 대안적인 치료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Palliative Medicine 잡지에서 발췌)

